

11_2. 청담동 시절_2 (1982~1989)

1982년(61세) 2월 17일~18일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최한 제2회 성가세미나에서 「올바른 교회음악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고, 27일 한국무궁화소년소녀합창단을 인솔하여 일본 옥명(玉名) 시민회관홀에서 옥명시소년소녀합창단과 교환연주회를 가졌다.

3월 1일 회갑(回甲)을 맞았다.

3월 10일 『음악분석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고, 19일 한국찬송가위원회 주최 한국 찬송가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번역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3월 27일 세종호텔 2층 소나무홀에서 나운영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음악논총』 헌정식을 겸하여 나운영 장로, 유경손 집사 회갑기념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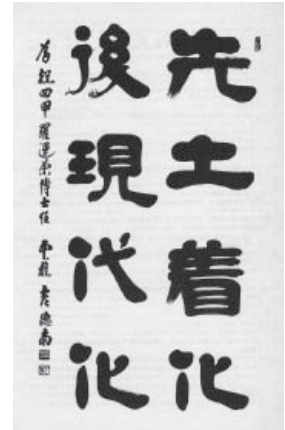
사실 유경손이 나운영보다 한 살이 더 많기 때문에 일년 전에 유경손의 회갑잔치를 해야 했지만, 부부가 함께 논문 헌정식을 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날 함께 회갑기념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한국음악논총』에 실린 헌정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음악의 서양화를 개탄하시면서 우리 음악의 진로는 우리의 얼이 담긴 음상(音像)의 토착화와 현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음악의 발전이라고 주창하시고,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운영 박사의 회갑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한국음악문화에 대한 그 뜻과 공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후학들의 옥고를 모아 기념논문집을 헌정함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비단 저희들 편집위원 일동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선생님의 음악을 향한 집념은 개척자로서의 의지와 노력으로 집철되었습니다. 일찍이 연세대학교 재직중 우리나라에 최초의 화성학 및 작곡법 등의 이론서를 출판하였는데 우리는 그분의 저서에서 독자적 창조성을 발견하였고 또 많은 그분의 작품에서 창작에서의 기법이 민족성과 문화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읽었고 근래에는 세종대학의 음악과의 책임자가 되시면서 민족음악의 발전은 폭넓은 음악연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악리진공 즉 음악학 분야인 음악미학, 음악사학, 비교음악학 등의 전공생을 배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와같은 그분의 창의를 우리 음악계의 무한한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며 이제 그것은 새롭게 한국음악의 세계화로 발전될 것입니다. (후략)



이 『한국음악논총』을 발행하기 위해 나운영이 생애와 그의 작품, 저서 등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나운영의 년보年譜는 이 글의 서문序文에서 언급한 대로, 나운영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메모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다. 나운영은 평소 꼼꼼히 메모를 하여 놓았고 작품보따리와 연주회 프로그램 등도 잘 모아놓았으므로 년보와 작품목록 등을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논문집에 실린 논문 중 제자 안일웅(安一雄) 교수가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을 집필하면서 나운영의 작품과 그 작품메모 등을 나운영과 함께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다행한 일이었다.

이 『한국음악논총』 첫머리에 나운영의 평소 지론持論인 〈선토착화 후현대화 先土着化 後現代化〉라는 붓글씨가 실려 있다. 이 글씨는 대한민국 서예 대전 초대 작가이자 심사위원인 길덕남(雲雅 吉德南, 1933~)이 회갑을 축하하여 써 준 글인데, 나운영은 이 글씨를 너무도 좋아하여 그의 서재에 항상 걸어 놓았다.



이날 회갑연에서 오래간 만에 나운영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야유회나 이런 여흥이 있는 자리가 되면 나운영은 은근히 유경손을 앞장 세웠다. 유경손의 만담漫談은 수준급이어서 참석자들이 웃음을 잠시 참고 쉴 새도 없이 계속되었다. 한참 흥이 익을 무렵 유경손은 나운영을 부추긴다. 수줍은 듯 미소만 짓고 있던 나운영이 마지못해 일어서서 바지 끝을 양말 속에 집어넣고는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든다. 양볼이 쪽 들어가도록 입을 수탉 주둥이처럼 오므리고는 눈을 크게 뜨고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갑자기 뛰어오르며 양팔로 크게 원을 친다. 그리고는 큰소리로 ‘꼬꼬댁 꼬꼬’ 소리 내어 울면 좌중은 깜짝 놀라고 만다. 이 수탉이 원을 치며 우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은 정말 일품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 깊은 인상을 심게 해 준 나운영의 장기였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섭섭해 한번 더 부탁하면, 나운영은 일어나 조용히 눈을 감고 「한오백년」을 구성지게 선창先唱을 하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후렴부분이 되면 모인 사람 모두가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말고”하며 따라 불렀다. 다시 2절 독창이 시작되는 “뒷동산 후원에 단을 모으고”를 부를 때면 나운영은 마치 이은관 선생이 배뱅이굿을 부르듯 “뒷동산~~~~~”하며 숨이 막힐 때까지 아주 길게 소리를 뽑았다. 이어 나운영이 “우리 부모님 만수무강을 빌어보자”하면, 모두가 눈을 감고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말고 한오백년을 살자는데 웬 성환가”하며 함께 제창을 하며 인생의 허무함과 부모생각, 고향생각에 몽클해지곤 했다.



나운영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이어서 “넓고 넓은 바닷가에…”하며 「클레멘타인」을 독창했다. 이 곡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후렴부분이 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을 합창하였고, 모두가 흐뭇한 표정으로 서로 서로 손을 잡으며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나운영은 이 곡을 4절까지 꼭 불렀다.

이렇게 나운영은 이 세 가지 장기만으로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사랑을 안겨주었는데, 이 중 가장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수탉 우는 모습이었다.

4월 10일 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이 되어 주소가 강남구 청담동 84-20으로 변경되었다.

4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음악분과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4월 16일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서울교향 취주악단 제16회 정기연주회〉에서 서현석의 지휘로 「심포닉 밴드를 위한 교향곡 제11번(Symphony No.11)」을 재연하였다. 프로그램에 실린 곡목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곡은 11/4, 9/4, 7/4, 5/4 등 특수한 박자기호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Irregular Time과 Cross Time이 구사되었으며, 전 악장을 통하여 한국적인 멜로디가 사용되었고, 제1악장에 있어서 한국적인 멜로디가 스트라빈스키적인 스타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타악기, 목관, 금관의 특이한 음색과 리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2악장에서는 강원도 지방의 농악 장단이 활용되었다.

6월 3일~8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82 Music Today John Cage 초청음악제에 참가하였고, 20일 『연주법 원론』(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8월 31일 **세종대학을 사임**하였다. 불과 1년 반 만에 사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세종대학의 계속된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남대학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속학을 중심으로 한 국악학과를 신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민속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던 나운영으로서 이 제의를 물리칠 수가 없었다. 이때 나운영은 한국적인 선율을 화성화(和聲化)하는, 한국화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자신의 이론을 구체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이다.

9월 **전남대학교 강사에 취임**하였고, 15일 『바하 15인벤션(2성) 해설』(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11월 5일 **음악이론총서 완간 축하 겸 『현대화성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서 나운영 음악이론 총서 전10권을 드디어 완간한 것인데, 번역서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음악이론을 체계적으로 엮어 전10권의 총서를 출판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욱이 나운영은 『현대화성론』 제10장에 한국적 선율의 화성화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인 <한국화성>을 집필함으로써 음악이론가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완성한 것이다.



[제1권 대학음악통론, 제2권 화성학, 제3권 대위법, 제4권 악식론, 제5권 합창편곡법, 제6권 관현악법, 제7권 작곡법, 제8권 음악분석법, 제9권 연주법원론, 제10권 현대화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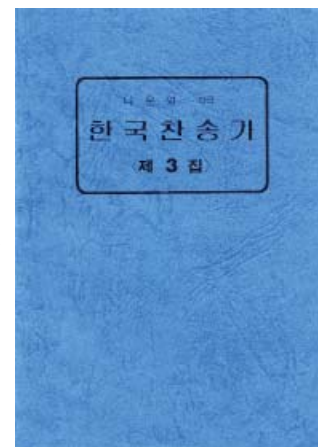
1949년에 화성학 초고를 집필하기부터 1982년 완간에 이르기까지 장장 33년에 걸쳐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생생하게 집필된 이 10권의 음악이론 총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광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나운영의 음악이론서는 처음부터 강의를 위한 교재로 만들었기에 혼자 독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나운영은 말년에 각 이론서의 Workbook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자료를 준비하였지만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11월 20일 전남대학교 교수에 취임한 후, 29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서리에 취임하였다.

12월 12일 신용산교회에서 열린 <한국 찬송으로 드리는 음악예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8곡을 나운영 객원지휘로 호산나성가대가 연주하였다.

12월 31일 그동안 발표해 온 신작찬송가 중에서 69곡을 선곡하여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제3집』(운경교회)을 출판하였다.



1983년(62세) 1월 20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 우리나라 최초의 - 민속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 학과가 설치되면서 학장에 취임하였다.

2월 17일~25일 일본 동경 일본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교회학교교사를 위한 음악강습회에서 강의하였고, 20일 나고야名古屋교회에서 열린 중부지방연합집회에서「찬양을 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2월 28일 한국 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위원장에 취임하였다.

9월 3일~10월 4일 운경합창단을 인솔하여 평소 꼭 하고 싶었던 성지순례를 하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럽을 여행하며 운경합창단 공연도 함께 하였는데, 특히 모차르트 생가^{生家}와 슈베르트 생가를 방문하여 대 작곡가들의 자취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그런데 운경합창단 단장 자격으로 유럽 공연에 나선 나운영이었지만 정작 합창단과 함께 다니는 일보다는 혼자 서점과 레코드점을 뒤지고 다니는 일이 더 많았다. 심지어는 평소 찾던 악보를 구하느라 투어버스가 출발하려는 직전에야 간신히 출발지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역만리 유럽에서 그 버스를 놓치면 고아신세가 될 터인데도 말이다. 합창단원에 의하면 책이나 악보, 레코드를 찾았을 때의 나운영은 거의 광기어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금맥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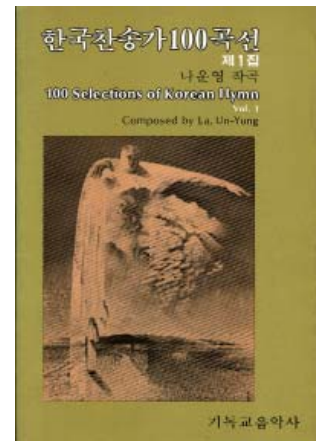


[슈베르트 생가에서]

1984년(63세) 2월 18일~2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교회음악 세미나에서 강의하였다.

5월 21일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100곡선 제1집』(기독교음악사)을 출판하였는데, 나운영은 머리말 대신에 이전에 자신이 발표했던 글을 실었다. 1983년 여름 계간^{季刊} 『교회음악』에 실린 「서양음악의 수용·모방단계에서 벗어나자 -선교100주년을 기하여」라는 글인데, 나운영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전략) ○ 교회음악인들이여!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 오늘날 우리 교회음악은 학교음악·사회음악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도 뒤떨어졌다.
 - 이미 체질화된 3도화성(Tertian Harmony)에서 탈피해야 한다.
 - 서양음악의 수용·모방단계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
 - 우선 우리의 뿌리를 찾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현대적 음악어법으로 주를 찬양하자!
 - 우리나라는 결코 서양교회음악의 식민지가 될 수는 없다.
 - 리듬·멜로디·하모니에 있어서 우리의 맛과 멋이 물씬 풍기는 오라토리오나 칸타타를 우리 손으로 작곡하고, 연주하고, 출판함으로써 선교 100주년을 멋있게 맞이하자!



6월 28일~7월 4일 재在 일본 대한기독교총회관동지방회가 주최하여 동경과 대관에서 열린 교회음악 세미나에서 강의하였다.

1985년(64세) 1월 19일 2년 반 동안 민속학을 바탕으로 하는 국악학과를 위해 노력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사임**하였는데, 나운영은 자신의 수상집에서 당시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 민속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학과가 설치되면서 나에게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의 중책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이다. 이로써 남도의 민속악의 명맥이 드디어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2년 반에 걸친 학장의 임기를 마치고 후학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니 착잡한 감정이 오간다. 왜냐하면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의 국악학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다른 대학과 달리 - 그 특징을 잘 살림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겠고 특히 국악의 작곡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¹¹⁴⁾

3월 1일 **목원대학 음악학부장에 취임**하였다.

7월 29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주최 제4회 교회음악강습회에서 「한국적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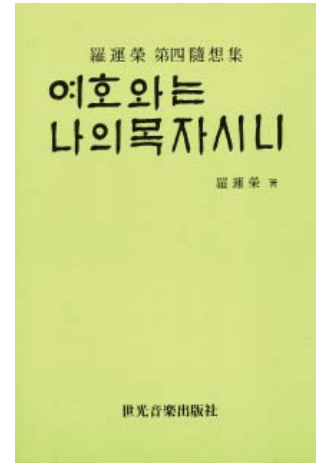
114)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62~163쪽

9월 6일 예술가곡 「국화 옆에서」(서정주 시)를 작곡하였다.

9월 30일 제4수상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세광음악출판사)를 출판하였는데, 나운영은 그 후기에 제4수상집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로 제題한 것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⁵⁾ 이 수상집에 실린 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악단생활 40년에 이르는 동안 본의 아니게도 다섯 번이나 필화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다.

1. 악단을 해부함
(1952년 10월 25일, 주간 문학예술)
2. 고민하는 한국 악단의 타개책
(1955년 1월호, 월간 신태양)
3. 배외사상과 배외사상
(1957년 12월 한국기독교시보)
4. 찬송가 개편작업에 신중을 기하라-찬송가위원회에 드리는 공개장
(1966년 8월 14일, 교회연합신보)
5. 방송가요 정화를 위한 NOTE
(1967년 4월 27일, 제3회 방송윤리 세미나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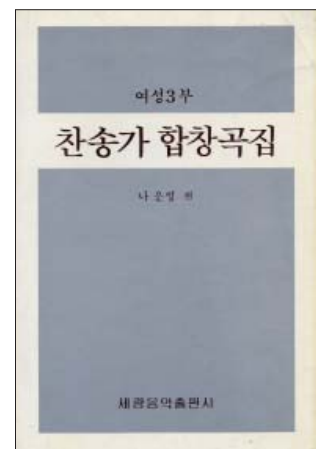
다행히도 모두 나의 판정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마도 나의 독설(獨說)이 독설(毒說)로 오인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문학적 표현력의 미숙에 대해 부끄럼을 감출 길 없다.

문필가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홍난파 선생을 본받아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제4수상집을 내놓게 되었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다만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민족적 아이디어와 현대적 스타일에 의한-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민족음악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한다.

1986년(65세) 2월 20일 여성3부 『찬송가 합창곡집』(세광음악출판사)를 출판하였는데, 그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합동·새·개편 찬송가의 가사가 서로 같지 않아 불편을 느껴오던 중 드디어 통일된 가사의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의 절대적인 요청에 따라 여성3부합창으로 편곡된 찬송가를 내놓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115)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286쪽

생각한다.

형편에 따라서는 여성3부합창으로 편곡된 찬송가를 그대로 남성3부합창으로 연주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데스 칸트 독창을 곁들여 연주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줄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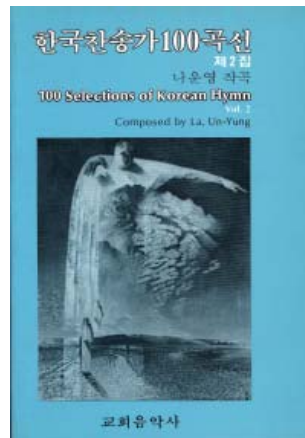
끝으로 찬송가의 토착화와 현대화를 목표 삼고 작곡된 우리 찬송가도 아울러 애창되기를 바란다.

2월 24일~28일 일본 동경에서 연주법 원론을 강의하였다.

7월 30일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100곡선 제2집』(교회음악사)을 출판하였다.

8월 14일~29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였고 Washington Baptist College & Seminary에서 강의하였다.

11월 15일 김수환 추기경과 면담을 하였다.



1987년(66세) 8월 19일~25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교회음악 세미나에서 단독으로 강의를 하였다.

8월 31일 목원대학에서 정년 퇴직하고, 9월 1일 목원대학 명예교수에 취임하였고 28일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가졌는데, 이때 주제 강연의 제목은 「한국음악의 과거, 현재와 미래」였다. 나운영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목원대학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의 사명을 다하였다.

9월 16일 MBC 가곡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88년(67세) 2월 10일 칸타타 「삼일의 횃불」(조애실 시)을 작곡하여 3월 27일 호산나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신작성가 율례 발표회>에서 초연하였다.

이 곡은 4월 29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시립합창단 제22회 정기 합창발표회에서 장영목의 지휘로 재연되었고, 이듬해 3월 9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제45회 정기연주회>에서 역시 장영목의 객원지휘로 삼연^三演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실린 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운영씨가 몇 해 전 조애실 지음의 장시 '3·1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여 88년 2월에 완성한 전 8부로 구성된 칸타타이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으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조애실 여사(3·1여성 동지회 고문, 크리스찬문학인협회 회원)의 이 민족시는 그 당시 나라 잃은 애끓는 마음을 절실히 되새겨 주고 있으며 해마다 3

월이 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되묻고 있다. 혼성합창과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의 독창, 남성4중창과 피아노, 징으로 이어지는 이 곡은 4도화성과 한국적 선율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작곡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피 끓는 합성과 절규'를 느낄 수 있다.

4월 30일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주최 아리랑 축제에서 「아리랑의 멜로디 분석」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6월 12일 호산나교회에서 유경손이 장르 임직을 받았다.

8월 2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나효선 피아노 독주회>에서 「12 Preludes for Piano Vol.1」을 재연하였다. 프로그램에 실린 곡목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운영 12전주곡 제1집 (1973년 11월 작곡됨)

제1곡 Chime chord(종소리 같은 화음)에 의한 찬가이다.

제2곡 Triton(3온음:증4도, 감5도)에 의한 무조음악의 곡이다.

제3곡 성격이 다른 4개의 단편들을 여러 가지 순서로 바꿔 연주하는 일종의 불확정성 음악의 곡이다.

제4곡 C조와 D조로 된 복조(複調)음악으로 주로 3도, 2도 화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5곡 2개의 차르메라(중국풍의 음악을 연주하는 피리의 일종)가 밤의 고요를 노래하는 듯한 곡이며 동양적인 선율로 되어 있다.

제6곡 장3화음을 병행법과 투영법에 의해 작곡한 스케치이다.

제7곡 7개의 화음을 여러 가지 순서로 바꿔 연주하는 일종의 불확정성 음악의 곡이다.

제8곡 Canon(동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방하는 것)으로 감5도의 변화화음으로 작곡되었다.

제9곡 Tog(술래잡기) Canon으로 작곡되었다.

제10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 멜로디의 4음 4th chord(4개의 음을 완전 4도 음정으로 쌓아서 만든 화음) 5음 4th chord(5개의 음을 완전4도 음정으로 쌓아서 만든 화음)로 작곡되었다.

제11곡 Triton에 의한 무조음악으로 되어 있다.

제12곡 12음 기법에 의한 행진곡이다.



10월 15일 서울 YMCA 주최 제1회 YMCA 동요 심포지움에서 「오늘의 동요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989년(68세) 5월 9일 동숭동 아트센터에서 열린 <20세기 작곡연구회 제20회 기념행사> 제2일 심포지움에서 「현 시점에서 본 한국음악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고, 이어서 열린 나운영 작품발표회에서 「Piano Rhapsody」(1942년작)를 김금봉의 피아노로, 「Sanjo for Violin & Piano」(1955년작)는 안형기의 바이올린과 이은진의 피아노로, 「Enigma」, 「Taryung」 from 6 Piano Preludes(1955년작)을 김금봉의 피아노로 발표하였다. 또 「Shinawi for 8 Players」(1965년작)는 장영구 지휘로 연세 New Music Ensemble이 연주하였고, 「12 Preludes for Piano Vol.2」를 김금봉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실린 박재열의 인사말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올해로 20세기 작곡연구회가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원래 후반기악회의 이름으로 1960년대초 나운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문화공보관에서 매주 현대음악의 분석과 토론을 하였던 그때부터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이 모임은 연세작곡연구회로 다시 '1970년대 중반'에 '20세기 작곡연구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적이며 세계성을 띤 현대적 작품의 창작"을 그 지표로 삼아 왔습니다. (후략)

5월 15일~6월 2일 미국 뉴욕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윤경합창단을 인솔하여 뉴욕, 워싱턴, 켄지, L.A. 등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다.

6월 20일 **한국 축음기 애호가 협회 고문에 취임**하였다.

축음기라고도 하는, 이제는 골동품점이나 가야 볼 수 있는, 태엽을 감아야 돌아가는 유성기와 유성기관(SP판)에 얽힌 이야기는 나운영의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다.

나운영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음악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기와 유성기관과 함께 자라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베버의 서곡 「환호의 소리」, 베르디의 「가극의 정화」를 들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하석암 선생이 경영하던 돌체다방을 드나들며 음악을 들었다. 일본유학 시절에도 다방에서 매일 살다시피하며 음악을 듣다가 1943년 귀국 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성기관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구하게 된 『귀와 눈에 의한 콜럼비아 음악사 제5부-현대음악편』 유성기관을 구하게 되면서 작곡가로서 앞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음악의 열렬한 사도가 된 것이다.



6·25가 터지자 나운영은 수많은 판 중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바르토크의 「현악4중주 제1번」, 『귀와 눈에 의한 콜럼비아 음악사 제5부-현대음악편』 유성기판만을 가지고 피난을 내려가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LP시대가 될 때까지 나운영은 주로 정동윤 선생이 경영하던 명곡사와 문영식 용이 경영하던 백조사에서 SP판을 사 모았다. 처음에는 서양음악 판만을 구입하다가 어느날 눈이 번쩍 떠서 국악판이나 한국음악판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다. 『춘향전 전집』, 『심청전 전집』, 『아악정수』를 비롯해 송만갑, 이동백, 박초월, 임방울, 김연수, 박녹주, 하규일, 정남희, 심상건, 오태석, 선우일선, 이화자 등이 연주한 SP판을 구입하였고, 흥난파 독주, 안기영 독창, 현제명 독창, 안병소 독주, 현제명4중창단이 연주한 판들도 구입하였다.¹¹⁶⁾

이렇게 모은 SP판이 레코드장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여기저기 우유 담은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이니 SP판 애호가라고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나운영을 축음기 애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나운영은 원래 기계를 다루는 데는 소질이 없었고, 기계를 보는 안목 역시 없었다. 본체와 사운드박스가 다른 축음기를 구입한 것은 예사이고, 늘상 나팔 달린 축음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나팔이 떨어져나간 축음기를 구입하였으니 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구입한 지 5,6년이 지난 1985년경 황학동에 있는 상보당 조수용 사장이 나팔만을 따로 구해 주어 온전히 나팔 달린 축음기를 갖게 되었는데, 고장이 날까봐 아까워서 자주 사용하지도 못했다. 책과 레코드판을 구입하던 비용이면 제대로 된 근사한 유성기 하나쯤은 구입할 수도 있었을텐데 나운영에게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하기야 나운영은 책과 레코드판 말고는 전혀 낭비를 하지 않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으니까... 양복도 겨울 양복, 여름 양복 한 벌씩이면 한 10년을 그대로 입었고, 와이셔츠는 소매와 깃이 닳아 헤지면 뒤집어 꿰매어서 입을 정도였고, 구두는 밑창만 갈아가며 계속 신을 정도로 근검절약의 표본이었다. 이렇게 아끼고 아낀 돈으로 축음기 하나 품 나게 장만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도 나운영은 축음기를 사랑하며 그 음악을 즐겼는데, 어느 음악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폭언(?)을 한 일도 있었다.

“나는 LP로는 음색(음질)을 듣고, SP로는 음악(연주 해석)을 듣는다.”

SP시대의 녹음은 지금처럼 기계장치에 의해 포장되지 않은, 진짜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은 실연(實演)이기 때문에, 푸르트벵글러나 살리아핀, 크라이슬러, 포이어만, 모이즈 레너 현악4중주단, 카페 현악4중주단 등의 돋보이는 연주해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6) 음악동아 1989년 4월호 216쪽에서 발췌.

나운영이 소장했던 축음기는 모두 5대로서 가장 많이 애용했던 것은 빅터에서 나온 전기축음기(Victor Electrola 4 Tube JE-27)였다. 진공관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 소리도 좋고 음량도 충분했으며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소리가 변하거나 태엽을 감느라 애쓸 필요도 없었다. SP판의 특징인 지글지글 끊는 소리는 없앨 수 없지만 사운드박스에서 나오는 갹갹거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나운영이 소유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했던 나팔 달린 빅터축음기 Victor No.32이다. 빨간 나팔을 구하고 싶어 고물상을 뒤지고 또 뒤진, 나운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축음기이다. 나운영은 음악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물건이 우리집의 보물에 속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 비록 대단히 낡고 허름한 것이지만 그래도 미제 빅터이니 나에게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유성기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지긋이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빅터상표의 하얀 강아지를 연상하리라.¹¹⁷⁾

그리고 또 하나는 빅터(Victor WJ2-7 1941) 축음기로 이 축음기는 특이하게 휴대용 축음기이다. 이 축음기를 제자인 이만방(李萬芳) 교수가 직접 시골에서 구해 왔다고 하는데, 제법 무거워 등에 지고 오느라 무척 고생했다고 한다.



최근 나운영이 소장한 SP판 중에서 국내 SP판만을 정리하였는데, 대략 600장이 넘었다. 이 중 일부는 기증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모두 나운영이 부지런히 다니며 모은 SP판들이다. 나운영은 LP시대를 때까지 주로 정동운 선생이 경영하던 '명곡사'와 문영식 옹이 경영하던 '백조사'에서 SP판을 사 모았고,¹¹⁸⁾ 청계천 8가나 황학동 구석구석을 뒤졌었다. 나운영은 가요판들은 거의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정도로 그친 것이다. 이 많은 SP판 중에서 흥난파 독주의 「애수의 조선」, 안기영 독창의 「마의태자」, 현제명 독창의 「니나」, 안병소 독주의 「인트로덕션과 타란텔라」, 현제명 4중창단의 『찬송가 앨범』 등등도 있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2장의 SP판을 발견하였다. 빅토리(Victory)에서 나온 찬송가 SP판인데, 찬송가 「동산에서」와 찬송가 「양떼를 떠나서」를 유경손이 독창하고 나운영이 피아노 반주를 한 SP판이다.

117) 음악동아 1989년 4월호 217쪽

118) 음악동아 89년 4월호 216쪽

11월 10일 박화목 작사, 나운영 작곡 『크리스마스 칸타타』(기독교음악사)를 출판하였다. 1956년에 작곡하여 1958년 등사한 악보로 출판하였던¹¹⁹⁾ 것을 31년 만에 정식으로 출판한 것이다.

11월 14일~16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회 Asia 찬송가 국제 세미나 개최 준비회의에 참석하였다.



119) 1958년 등사한 악보 원본은 없고, 그것을 복사한 악보만 남아 있음.